

키움 히어로즈 이정후와 LG 트윈스 고우석이 같은 날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에 포스팅됐다. KBO는 "5일 오전 MLB 사무국으로부터 이정후(키움)와 고우석(LG)을 12.4(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MLB 30개 구단에 포스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선수 계약 계약에 따라 두 선수 영입에 관심이 있는 MLB 구단은 5일 오전 8시(미국 동부시간)부터 이정후, 고우석 감독과 협상을 시작할 수 있으며, 계약 마감일은 내년 1월 3일 오후 5시(미국 동부시간)입니다.

이정후는 국가대표 중심 타자이고 고우석은 국가대표 최종 후보이기 때문에 야구 팬들은 그들의 행선지와 계약 금액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우석이 이정후의 여동생이자 이종범 감독의 딸과 결혼하면서 가족의 일원이 된 만큼 두 사람의 동시 포스팅이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포스팅 움직임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정후는 미국에서 화제가 되면서 일찍부터 준비해 큰 계약을 노리고 있는 반면, 고우석은 최근 미국에 알리는 데 시간이 짧았습니다.

이정후는 지난해부터 올 시즌을 끝으로 포스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올해 애리조나 스프링캠프 이후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이정후를 찾아왔습니다. 이정후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천재 야구 선수입니다. 2017년 1순위 후보로 히어로즈에 입단한 그는 곧바로 1군 톱타자로 활약했습니다. 이정후 이전에는 고졸 타자들의 기량과 체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정후는 그런 편견을 불식시켰습니다. 시즌 내내 톱타자로 활약한 이정후는 884경기에

출전해 34만 타율(3476타수 1181안타) 65홈런 515타점을 기록했습니다. 타율은 3,000타석 이상을 소화한 타자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는 발목 부상으로 시즌을 일찍 마쳤는데, 이는 시즌 타율 중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미 이정후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 언론은 매일 이정후에 대해 보도합니다. 뉴욕 포스트도 "20개 팀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양키스, 뉴욕 메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등 유명 팀들이 이정후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정후의 미국 내 에이전트는 거액의 계약을 맺은 스콧 보라스입니다. 박찬호와 추신수는 메가 히트 계약을 체결해 한국 팬들에게도 친숙합니다.

고우석은 이정후보다 포스팅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정후는 오래전부터 포스팅을 추진해왔고, 고우석은 갑작스럽게 포스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연봉 협상 과정에서 고우석은 이기면 구단에 포스팅을 요청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승리한 후에는 공식적으로 포스팅을 요청했습니다. 고심 끝에 구단은 계약 금액에 제한을 두고 허락했습니다. 대표팀의 선발 라인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마무리이기 때문에 혈값에 보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즌 중 미국 에이전트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에이전트가 적극적으로 그에게 접근했고, 국내 에이전트와 함께 영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진영은 지난해 42세이브로 세이브왕에 오르며 뛰어난

평균자책점 1.48을 기록했지만 올 시즌 부상 여파로 15세이브, 평균자책점 3.68에 그쳤습니다. 7시즌 동안 19승 26패 139세이브, 평균자책점 3.18을 기록했습니다.[주소킹](#)

포스팅을 통해 고진영은 무조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솔직히 저에 대한 마음이 궁금합니다."라며 "포스팅을 할 수도 있고, 못하더라도 내년에 FA가 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흐름에 따라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불펜 보강이 필요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고우석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애틀 매리너스에도 고우석과 같은 불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정후에 비해 관심의 온도는 아직 뜨겁지 않습니다.